



런던시인의 문화학교의 열린강좌, 영국사랑 20회 방송강좌 내용 요약/
1부와 2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열린 판의 시대에서의 생존법

일방통행식의 문화시대에서 열린 문화시대로...
높은 무대는 사라지고
열린 판의 문화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20세기 열린 문화의 기수들

무용/ 이사도라 던컨,
연극/ 베르톨트 브레히트등
미술/ 마르셀 뒤샹, 리차드 하밀톤, 요셉 보이스...
음악/ 라흐마니노프로 부터 비틀즈, 마이클 잭슨, 에미넴, 제이지로
철학과 사상/ 들뢰즈, 촘스키...

1) 판의 변화와 진행

19세기 후반부터 단일 구조 사회는 무너지고
판의 몰락과 파괴의 시대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판의 몰락과 파괴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판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부터 다중 문화복합시대의 판이
열린다.

다중복합구조 사회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다.
그러나 일부 유럽사회등 진보적 서구사회는
또 다중복합구조가 해체된 개인구조 사회가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탈구조주의 사회다.

2) 판의 변화에 대한 개인의 자세

- a) 구조에 대한 이해..
- b) 판을 읽지 못하면 어느 판에서든지 살아남지 못한다.
- c) 새로운 판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하기 위해선 개인이든 사회든 반드시
파괴와 몰락이 필요하다.



- d)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복합적 판의 구조를 이해해야만 한다
- e) 개인의 판의 시대란?

3) 판의 근본원리, 판의 변화논리

- a) 판의 3 기본 구조란
- b) 판의 중심에는 이것이 있다

4) 판을 읽는 다는 것은?

- a) 판의 중심에 다가서기 위한 방법
- b) 판을 읽는 법**

강사/ 전하현(미술사가, 전업작가로 8권의 저서를 펴냄)

다음 8월의 열린 강좌, **판을 읽는 법.....**

- 1) 판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2) 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 3) 판의 이동에서 필요한 그것?

자세한 내용은 영국사랑 홈 페이지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RPInstitute?ref=hl>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